

## 2020년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2. 28.(금)

### ■주요 회의 내용

#### ▲ 정윤식 위원장

- 2/12(수) 오후 2시15분 차분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분위기 유도 해설자는 백순영 교수(카톨릭대 의대), 박민선 교수(서울대 가정의학과) 인데 내용은 좋으나 사회자 및 해설자 모두 토크(talk) 속도가 빠르고 너무 톤이 높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격상, 국민정서상 사회적 민감도가 높을수록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오후 3시59분 초기 발굴 해설자를 단독, 독점으로 확보 유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학과 교수가 설명을 상세하게 전문성있게 잘 함. 이분은 초기에는 연합뉴스에만 출연했는데 곧 스타가 되어 많은 방송 채널에서 출연하고 있음(설대우 중앙대약대 교수도 연합뉴스TV에서 출연했으나 지금은 방송 스타) 향후 대형사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므로 초기 발굴한 해설자를 단독으로 독점으로 확보 및 계약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에는 스타 해설자들이 여러 매체에 동시에 등장하므로 매체별 차별화가 없어짐

- 2/20(목) 기자들의 현장 밀착취재, 바람직한 기자정신이나 안전대책도 점검, 홍정원 기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정지훈 기자는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현장 직접 보도(정기자는 21일 경산시도 취재).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연합뉴스TV 기자들의 현장 밀착성은 다른 채널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회사가 자부심을 가질만함, 그러나 기자들의 밀착취재가 건강상 유해하지 않도록 취재안전 점검도 각별히 요청됨

- 2/21(금) 오전 10시30분 해설자 두분의 역량 차이가 큼. 따라서 사회자들이 1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됨, 해설은 내용이 좋았으나 일방적인 해설형식 때문에 시청 효과가 반감되었음, 해설자 섭외과정에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TV 해설에 부합한 테크닉과 설명력도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 코로나 비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제언하자면 국가기간통신사에서 만든 채널로서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적 책무로써 바람직함. 국내 언론사들이 24시간 코로나만 방송하니까 국민불안과 공포가 오히려 증폭되는 역기능도 있음, 팩트(fact) 중심의 현황전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코로나와 정치(선거영향), 코로나와 경제(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코로나와 외교문제(중국과의 관계), 코로나와 교육(개학 개강문제), 코로나와 가정(육아문제 등), 코로나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태도 (예방방법, 대인 접촉, 모임참여 문제)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문제도 논의하였으면 함, 국가위기상황이지만 과학적 대처방법, 사회통합, 사회적 품격과 의연한 대처자세 등 국민 교육 및 계몽차원의 프로그램도 요청됨, 질병관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부고위인사 (국무총리, 부총리, 대구시장, 관계 부서 장관 등) 들이 출연하여 확고한 방역의지를 표명하고 "다 함께 헤쳐 나가자"는 도적적 결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즉 국가적 차원에서 캠페인성 홍보가 요청되고 연합뉴스TV가 이를 주도.

### ▲ 조영숙 부위원장

-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학교 등 많은 곳에서 업무와 학업이 중단 또는 연기되고 있음. 저 또한 많은 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지난 며칠 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 이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연속해서 3일간 연합뉴스TV를 전일 시청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함. 우선, 연합뉴스TV의 코로나19에 대한 보도는 24시간 보도채널인 타 방송사와 비교해 볼 때, 앵커들이 차분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돋보였음. 아울러 패널로 나온 전문 의료인들의 설명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생활상의 대처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음. 정확한 정보제공과 좋은 패널을 찾고자 노력해 주신 연합뉴스TV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주지하다시피 공중보건위기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공중보건위기는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국제관계의 위기와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인 위기로 다루어져야 함. 공중보건 현장의 문제와 직결될 생활상의 문제, 나아가 거시적인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가짜 혐오뉴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을 방지하게 됨. 위의 관점에 기초해서 본 위원이 지난 3일간 하루 종일 연합뉴스TV를 시청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보도의 주요 내용은 "감염자 또는 확진자가 몇 명 증가되었다", "어떤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식의 중계방송 식 보도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었음. 비록 의료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 역시 공중보건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음. 반면, 시청자들에게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시민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언어, 태도, 행동에 대한 가이드가 될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음.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중계 식 보도에서 한 발 나아가 공중보건위기가 파생시킨 복잡한 현실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담긴 심층보도를 확대해 주시길 요청함.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시킨 위기는 이미 전 세계적 현상임과 동시에 단순한 의료적 위기를 넘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이 모두 망라된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시청자들은 개인과 국가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짜뉴스가 아닌 연합뉴스TV와 같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만든 방송에서 찾고자하기 때문임. 요약하자면, 연합뉴스TV의 코로나19의 보도방향에 있어서, 의료적 접근에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간의 상호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인 보도와 해설이 강화되기를 요청함. 그래야만이, 국민들 사이에 떠도는 전문성을 가장한 가짜뉴스와 파편화된 정보에 기초한 혐오뉴스라는 더 큰 감염으로 부터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 박성용 위원

- 2/10(월)은 미국 아카데미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발표되는 날이었으며, 이날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등 4개의 상을 받았음, 아카데미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며,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TV조선에서는 수상식을 생중계로 방송하였으며, 모든 방송사에서 수상내용을 속보로 다루었음. 연합뉴스TV에서도 이를 속보로 다루었음. 그러나 연합뉴스 TV의 속보내용은 다른 방송사에 비하여 준비성, 뉴스에서의 비중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함, YTN에서는 수상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수상내용을 속보를 방송하면서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를 패널로

초대하여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음. 그러나 연합뉴스 TV에서는 영화관련 전문가 없이 수상소식만 속보로 보도하였음, 수상식 전부터 기생충이 수상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영화계에서 오스카상의 영향력, 한국영화계의 현실 등을 감안하였을 때, 수상식을 생중계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속보로 관련뉴스를 제공할 때, 영화관련 전문가를 미리 섭외(준비성)하여 패널로 모시고 관련 이야기가 보도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 일기예보 관련내용 적설량을 지역별로 색상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색상별로 적설량이 얼마인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색상화 된 박스(예를 들면, 노란색 박스는 10mm 등)별로 오른쪽 숫자로 적설량을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TV 전체 화면 중 일부화면(중앙 등)에 지도를 통하여 이를 표시하는 경우, 색상화된 박스별로 적설량을 표시하는 숫자의 글씨크기가 너무 적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또한, 지역별 일기예보 관련 정보를 지역별로 색상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진행자의 옷 색상이 화려(다색체)하고 지역별 일기예보 색상과 비슷할 경우, 시청자의 일기예보에 대한 주의를 분산하는 측면이 있음

- 신종 코로나 관련내용 신종 코로나 관련뉴스를 현장(예를 들면, 경북 청도병원 앞 등)에서 기자가 생중계로 보도하는 경우, 연합뉴스 TV에서는 기자가 마스크를 벗거나 또는 턱 밑으로 내리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방송시 문제가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방송사별로 다르지만 일부 방송사에서는 현지에서 기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있음

- 정부에서 매일 진행하는 코로나 관련 브리핑 내용을 생중계하는 방송에서 수화자를 브리핑 하는 사람과 동시에 TV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은 좋았음(YTN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나, 지상파에서는 수화자를 방송화면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뉴스에 따라 TV화면 왼쪽 상단에 박스로 뉴스특보 등의 형태로 뉴스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그러나 뉴스 시작 시 주요뉴스로 박스형태의 자막으로 제공된 뉴스도 어떤 경우는 뉴스특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왼쪽 상단에 자막으로 표시되는 뉴스특보, 뉴스속보, 그리고 자막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뉴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

#### ▲ 박성복 위원

-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뉴스보도를 보면서 뉴스 기능에 대해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하게 됨. 연합뉴스TV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코로나 관련 뉴스는 대부분 현재의 코로나 확산 진행상황과 확산과 더불어 발생하는 각종 감염사태 및 사망소식등의 뉴스를 접하면서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뉴스가 대부분임. 물론 뉴스의 여러가치 중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경고 및 경각심을 일깨워 주의를 환기시켜야하는 목적도 있음. 그런데 최근 연합뉴스TV를 보면서 다른 뉴스채널과는 크게 다르지 못한 점을 느끼게 됨. 뉴스관행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연일 이어지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들은 경각심을 떠나 공포심과 불안감 그리고 그로하여 사회적 절망감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함. 마트에만 가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옴.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의 사재기의 열풍이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모습보다 더 크게 일어나고 있음. 며칠전 뉴스보도 중 대구지역으로 의료봉사자들이 대거 내려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현재 절망감에서 아주 작은 희망 또는 기대를 갖게 되는 느낌을 갖음. 이어 대구를 살리자라는 캠페인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도 느낌. 모든 채널에서 정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실적 자료등을 바탕으로 사실보도에 치중하면서도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개인, 단체와 같은 일선의 노력을 알림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은 희망과 바람, 또는 가슴뭉클함을 전달해줄 수 있는 뉴스보도를 기대하게 함. 이러한 뉴스는 주어지는 자료만을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법이고 직접 현장에서 찾아 취재를 해야 하는 정성과 수고로움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뉴스를 다루는 언론에서는 반드시 그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현재 코로나관련 뉴스를 다루는 연합뉴스TV를 보면서 기대하게 되는 부분임.

- 지난 25일 오후 5시 뉴스특보를 진행하는 여성앵커의 목소리가 감기에 걸린듯 잠겨있고 뉴스진행 중에 자주 목이 메이는 듯한 진행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됨 코로나 관련 뉴스이기에 앵커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느낌은 더욱 클듯함. 뉴스진행자는 건강상태를 늘 주의해야 할 듯. 26일 5시 30분 경에도 25일보다는 나아진듯하나 시청자로 하여금 듣기에 불편한듯 목이 잠기는 듯한 진행 상태를 보임. 다루는 뉴스의 내용에 따라 앵커의 전달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 ▲ 김경만 위원

- 2/14 18시08분경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소비진작, 내수활성화 방안 코로나 19, 메르스보다 경제에 더 영향"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섰음,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19가 잘 관리되고 있는만큼 소비를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 소개,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정부와 민간의 총력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계의 수장들의 발언과 지자체의 노력들을 소개한 것은 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언론의 관심과 보도방향은 바람직했다고 생각됨, 정부는 2월내 내수 활성화 등 소비진작을 위한 종합패키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 19 사태확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17 09시33분경 뉴스보도에서 국내기업 중국공장 재가동... 완전 정상화는 시간 걸릴 듯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2. 14일자 "중소기업 3곳중 1곳, 코로나 19로 피해" 코로나 19로 멈춰섰던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이 부분적으로 재가동 들어감. 그러나 100% 정상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 코로나 19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알아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와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금리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대책을 보도, 이는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현황을 시청자와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살펴 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02/17 15시54분경 "불황 장기화되면 민생타격..비상"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 경제 활력 살리는데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4개 경제관련 부처들로부터 합동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보다 크게 체감된다"며 경제활력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임, 문 대통령은 국내 소비활동과 여가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져 공포와 불안으로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는 내용임, 이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경제계를 비롯한 민간에 던져주는 긍정의 메시지로 보여질 수 있음

#### ▲ 장유리 위원

- 뉴스특보 2/26 18시45분경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여 대면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택배 기사에게 감사하다는 메모장을 현관 입구에 붙여 놓은 뉴스 기사는 요즘 이 시기에 훈훈하고 따뜻한 미담이 되어 연일 흑독하게 터지는 기사에 비해 분위기 쇄신 되어 좋았음
- 뉴스특보 2/25 19시경 '중국인, 한국인 입국 거부' 중국 한국인 입국시 강제 격리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탑승객을 격리하는 것이지 한국인만을 격리하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만 격리하는 것처럼 보도 함, 또한 유튜브 누리꾼의 말을 빌어 보도하는것은 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소지가 있음.
- 하나로 마트, 우체국 등 구입하려고 줄서있는 장면만을 방송화면에 띄우는 경향이 느껴짐,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로 비춰 질 수 있음.
- 주변 반응은 코로나 보도시 자극적인 문구 사용이 많고 반복 되는 보도에 중간 중간 다른 채널로 돌리게 됨.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스크 기부, 헌혈, 의료지원 등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 상황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훈훈한 상황들도 많이 보도 해주었으면 함

#### ▲ 백대용 위원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어서 노고가 많음. 매일 매일 급속도로 늘어가는 확진자와 검사진행자의 수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언론사의 업무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울한 내용만이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 다소 안타까움. 코로나19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국민들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코로나19의 전염속도를 줄이고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도 함께 병행되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방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 차원에서 2월 24일에 방송된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코로나19 의심증상시 행동수칙" 같은 내용은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방송이라 할 수 있음. 국민이나 소비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차원에서의 뉴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자주 반복적으로 방송되었으면 함. 아울러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함.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한 방안이나 대안은 없는지, 가정에서 손쉽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대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방법은 있는지 등임. 대부분의 보도내용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임. 어떠한 현상이 단순히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넘어서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음.

### ▲ 허찬행 위원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음. 연합 뉴스TV는 신속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하여 시청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현황, 확진현황, 정부와 지자체장의 발표 등을 전달해주고 있음. 또한 전문가 패널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앞으로의 전망 등을 해설해주고 있음. 지상파3사와 종합편성채널4사도 뉴스특보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현황 및 정부의 대응 등을 수시로 전해주고 있지만, 24시간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가 거의 하루 종일 관련 보도와 해설을 타방송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음, 첫째, 보도에 있어 냉정함을 잃지 않기 바람. 검사나 확진자 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 시시각각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함, 현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하루 단위로 몇 명이나 늘었다는 것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으면 함, 둘째, 시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 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었으면 함. 코로나19의 발생현황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개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만일 자신이 누군가와 접촉했는지도 모르지만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일 것임.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비롯해, 의심증상과 증상이 있을 때 대처법, 자가 격리로 출근을 못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시 병원비나 치료비용 등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주었으면 함.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23일 이전과 23일 대부분의 언론은 '심각'단계는 '경계'단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각 단계에서 정부 대응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들은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쾌하게 해설해주지 못했음. 이렇듯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연합뉴스TV 취재 및 제작진의 안전 또한 중요함. 특히 현장 취재기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람

### ▲ 나지수 위원

- 무엇보다 국가재난사태에 노력하시는 연합뉴스TV의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칭찬을 보냄. 시청자가 코로나정보를 현재 연합뉴스TV에 제일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광고가 나올때도 우측상단에 코로나정보는 계속 표시해주면 좋겠음. 2.26 20:25경 이게 일정하지 않게 어떤때는 광고나올때도 나오다가 다른 날, 다른 시간때 보면 나오지 않음. 2.25 19시경 심지어 어떤 시간때는 뉴스진행중에 코로나 상황표시가 없어지기도 했음.

### ▲ 서창호 위원

- 2/10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 보도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영화 기생충 수상 소식을 뉴스 중간에 진행자가 뉴스속보로 신속히 전해주었고, 뒤이어 <이슈큐브>에서 전문가(영화평론가, 시사평론가)와 함께 수상 의미, 한국 영화사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봄. 단순한 수상 소식 전달을 넘어서서 다각도로 아카데미 수상과 관련한 깊이 있는 분석, 접근하여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좋았음. 아울러 비록 수상을 하지 못하였으나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에 대하여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 점도 좋았음.

- 2/11 후베이성 3차 전세기 출발 관련 보도에서 YTN은 생중계로 보도하였으나, 연합뉴스TV는 뉴스메이커(고용부 2020, 업무보고) 방송 후에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조금 전 인천 국제공항”으로 표기한 상태로 보도. 보도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정부 관계자가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장으로서 인터뷰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외교부 재외 동포영사실장으로만 표기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2/22 코로나 19 대응책 브리핑 보도에서 지상파 3사는 브리핑 현장에서의 수어통역을 배제한 채 우측 하단에 별도 수어 통역을 보낸 것에 그쳤으나, 연합뉴스TV는 수어통역사를 중앙정면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그 어느 때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 방송사에서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상파 3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의 일방적인 브리핑만을 보도하였으나, 연합뉴스TV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일정 시간 보도함. 현장에 있는 기자를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됨.
- 연합뉴스TV 스페셜 119회 <봉하이브 열풍>, 120회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방송하였는데, 최근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선정,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린 것 같음.